

한국불교 역사성 비해 문화유산연구 턱없이 부족

‘불교무형문화유산’ 종단이 지정한다

조계종이 불교무형문화유산의 안정적인 보전과 전승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종단 차원에서 올해부터 가치가 높은 무형유산에 대해서는 직접 종목을 지정해 그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는데 매진할 것을 밝혔다. 특히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으로 가치가 높은 종목은 예비목록으로 등록시켜 전승단체와 전승자를 체계적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앞으로 종단 지정 불교무형문화유산은 국가중요무형문화재 뿐 아니라 세계무형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불교무형문화유산은 사찰을 중심으로 전승되어 온 소중한 불교의 자산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다른 분야에 비해 불교무형유산에 대한 정책

역사 예술 학술적 가치

높은 종목 수시로 접수

정보보존위 회의 거쳐

총무원장 최종결정 방식

적 관심이 미진했던 것은 사실이다. 1700년이라는 한국불교의 역사성과 다양성을 고려했을 때 무형유산에 대한 연구도 턱없이 부족했다. 현대 화를 거치면서 점차 전승의 맥이 사라져가고 있는 실정이지만 전체적인 현황과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단적인 예로 올 초 총무원

문화부와 불교문화재연구소가 공동으로 펴낸 <다비현황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마땅한 전수자가 없는 것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종단은 불교무형유산의 전승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사찰이나 단체들을 대상으로 ‘불교무형문화유산 지정신청서’를 연중 수시로 접수받는다. 이후 접수된 예비목록을 중심으로 특별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종목에 대해 전문가들의 조사과정을 거쳐 최종 지정한다. 이 과정에서 종단 불교무형문화유산 지정을 위한 회의는 정보보존위원회가 진행하며, 종무회의를 거쳐 총무원장 스님이 최종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결과는 6월 및 12월에 통보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고 있다.

본·말사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승자나 전승단체 등은 종단에서 배포한 지정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교구 본사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에는 신청하고자 하는 무형유산의 명칭, 종목의 역사성, 실행방법, 기예능 등에 대한 설명, 전승교육 시설에 관한 내용 등을 적도록 명시했다. 연혁과 행사진행, 전승방법 등과 관련된 자료도 첨부하도록 했다. 본사는 자료를 취합해 종단에 공문으로 송부하면 되며, 직영 및 직할사찰은 문화부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는 종단 홈페이지(www.buddhism.or.kr)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 5면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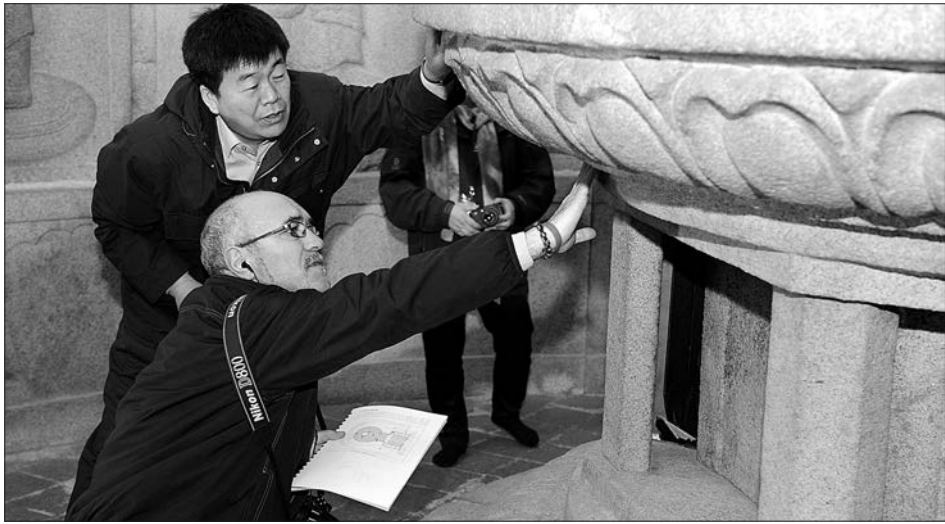
동국대 총동창회 내홍

회장 추대문제로 균열

동국대 총동창회가 제27대 회장 선출을 두고 양측으로 갈라져 갈등을 겪고 있다. 이연택 회장을 중심으로 한 회장추대위원회 측에서는 총동창회 고문인 박종윤 전 한국토리리총재단 의장을, 회장직무대행체제를 구성한 측은 송석환 총동창회 수석부회장을 새 회장으로 각각 추대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직무대행체 측은 “이연택 회장은 26대 회장에서 당선된 후 2012년 동국인의 밤 행사 전일까지 동창회관 건립기금 6억원 가운데 4억원을 미납했기 때문에 당선무효로 이미 회장자격을 상실했다”며 “이연택 회장이 추천한 박종윤 동문은 6억원의 돈을 내는 동창회장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회장추대위 측은 “6억 조항은 회칙상 선거에는 적용되지만 추대에는 적용되지 않고 이 회장은 선거가 아닌 추대였다. 임기가 끝나 시효마저 지난 문제를 불순한 목적으로 뒤늦게 들고 나온 직무대행 측은 불법세력”이라는 입장이다. 현재(25일) 양측은 각자 정기총회를 열고 취임식을 갖겠다고 밝혀 내용은 깊어질 전망이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문화재청과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가 지난 20일 진행한 석굴암 석굴 현지조사에서 구조안전 국제전문가가 본존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문화재청

“석굴암 본존불 균열, 우려할 수준 아니다”

김동욱 안전점검단장 등 국제전문가 현지 회의 “석굴 돔 정밀조사 필요”

“본존불 균열은 당분간 큰 문제가 없겠지만 석굴의 돔 즉 천장부분은 구조적으로 취약한 점이 많다.” 김동욱 석굴암 구조안전점검단장(문화재 위원)은 지난 22일 본지와와 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단장은 문화재청(청장 나선화)과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이코모스)가 지난 21일 개최한 경주 석굴암 석굴 구조안전에 대한 국제전문가 회의에 참석했다. 김 단장은

“회의에 참석한 국내외 전문가들은 본존불보다 돔 부분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앞서 열린 20일 현지조사에는 피사의 사탑 복원에 참여한 이탈리아 출신 조르지오 크로치 박사와 클라우디오 마르고니 박사가 참여해 석굴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을 진단했다. 국제전문가들은 21일에도 석굴암 석굴 구조안전점검단장인 김동욱 위원(문화재위원)을 비롯한 진동과 구조안전 등 국내외 안전진단 전문가 8명이 참석한 전문가 회의를 열고 석굴 균열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 공조 기계설비 진동에 의

한 구조적 영향검토, 석굴암 석굴 보존관리 방향 등에 대해 비공개로 논의했다. 김 단장은 “하반기 국립문화재연구소를 통해 좀 더 인력을 투입하고 새로운 장비를 준비해 체계적으로 조사한다”며 “장기적 보전 관리를 위한 종합 심포지엄도 가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문화재청은 이번 현지조사 및 전문가회의 결과를 토대로 석굴암의 중장기적 보존 방안에 대한 방향을 모색한다. 문화재청은 “균열문제 등 석굴암 석굴의 보존관리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과학적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김명환 위원장 등 철도노조 집행부가 지난 24일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해 지난해 철도파업당시 중재를 위해 노력해 준 데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KTX 열차 모형을 선물했다. 신재호 기자 air501@ibulgyo.com

“철도문제, 지혜로 잘 풀어나가 달라”

총무원장 자승스님

김명환 위원장 등

노조집행부에 당부

철도노조 집행부가 조계종 총무원을 찾아 지난해 철도파업당시 중재를 위해 노력해 준 종단에 감사인사를 전했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과 박태만 수석부위원장, 김상노 해고노동자 대표 등은 지난 24일 한국불교문화역사기념관 4층 접견실을 찾아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비롯해 불교계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철도노조 예방에는 화쟁위원장 도법스님, 노동위원장 종호스님, 결사추진본부 총괄부장 덕산스님 등이 배석했다.

총무원장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김명환 위원장은 “파업참여자

해고와 강제전출 등으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가압류로 해고자들을 위한 생계비 지원도 어렵다”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불교계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잘 버티고 있다”고 밝혔다.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화한 뒤에 코레일 측은 파업참여 자 130명을 해고하고 284명을 정직하는 등 징계를 내렸으며, 철도노조에 287억에 달하는 손해배상 가압류를 청구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작금의 어려운 상황을 지혜와 인내로 잘 풀어나가길 바란다”며 “무엇보다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화쟁위원장 도법스님도 화쟁순례를 통해 느낀 소회를 밝힌 뒤, “허심탄회하게, 진지하게 대화를 통해 문

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바람을 모두들 갖고 있지만 실제로 대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누군가 대화를 위해 역할을 해야 하는데 종교계 지도자들이 나서서 방향과 중심을 잡아주면 정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14일 조계사 생활을 마치고 경찰에 자진출석한 지 70일 만에 다시 조계종 총무원을 찾은 박태만 수석부위원장은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기구가 구성되면 기구에 힘이 실려야 하는데 실제로 힘이 실리지 않고 있다”며 불교계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이어 김명환 위원장은 KTX 열차모형을 총무원장 스님에게 선물하며 감사를 표했으며, 박태만 부위원장도 조계사 생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조계종 종무원들에게 떡을 전달했다. 염태규 기자



하정은 기자의
현장에서

tomato77@ibulgyo.com

절에서 스님 만나기 어렵다?

문제는 이들에게 스님은 정말로 만나기 어려운 존재라는 것이다. 물론 법회에 참석하면 법상에서 법문하는 스님을 만날 것이고, 템플스테이라고 신청하면 가까이서 스님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형식 속 만남보다 편안하게 마주앉아 깊은 속 얘기도 털어놓고, 여러가지 인생상담도 하고 싶어 한다. 종무소에 찾아가 스님을 만나고 싶다 말하기도 어렵고, 말한다 해도 ‘누구나’, ‘용건이 무엇이나’ 등의 질문에 답하다보면 거절당하기 일쑤다. 이른바 스님방 문턱이 너무 높다. 특별하고 분명한 용건이 없다면,

그리고 명함을 내밀만한 ‘막중한’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대부분 절에서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만한 스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 누구에게나 스님방을 개방한다면 그 역시 예상치 못한 혼란의 원인이 될 수 있겠지만, 다양한 장치를 통해서라도 누구나 절에 가면 언제나 스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할 것 같다.

누군가의 소개 없이는, 혹은 특별한 사찰업무 용건이 없이는 절에서 스님 만나기 어렵더라는 말은 흠먼지 뒤집어쓰면서 평생 중생교회를 위해 길 떠난 부처님의 삶과도 배치된다.

Templus

전자 불전함

기도 · 인등비 · 자비후원금 · 템플스테이

1

자동이체(CMS)

이용기관이 은행 전산 시스템과 상호 접속하여 다수은행을 통하여 고객의 계좌에서 일정금액을 매월 정해진 날짜에 출금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예] 보험료, 신용카드대금, 정수기렌탈료 등 [이용기관] 조계사, 봉은사, 불광사, 내원정사, 미타선원 등

2

갤럭시 탭 기부단말기

특징 ① 행사 및 사무실 비치용 신용카드 기부단말기 ② 최초 일회성 기부 문화 활성화 ③ Wi-Fi, 3G를 활용한 장소에 구매됨이 없이 사용 ④ 화면 상단에 지속적인 사찰, 기관로고 및 이미지 노출로 홍보 극대화

구성 ① 삼성 갤럭시 탭 10.1 ② 신용카드 리더기(블루투스) ③ 받침대 및 잠금장치 ④ Wi-Fi, 3G 무선사용(이동통신이 가능한 모든 장소에 설치가능) ⑤ 사찰 동영상 및 이미지 관리 시스템

3

터치스크린 키오스크 기부단말기

특징 ① 사찰 동영상 노출홍보 / 자영업 신도 광고 홍보 ② 신용카드 결제 후원 (기도, 인등비, 자비후원금, 템플스테이) ③ 자유로운 이동성

4

단말기 가격 (V.A.T 별도)

	갤럭시 탭 기부단말기 + CMS자동이체	키오스크 기부단말기
셋팅비	200,000원	4,000,000원
유지비	80,000원	100,000원
판매수량	200대	50대

Templus 전자불전함만?

신도님들에게는 편리하고, 사찰에서는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